

# 어촌 6차 산업화 성공사례와 과제



김용태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사무관

## ● 들어가면서

최근 농·어촌 6차 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차 산업화에 대한 높은 관심은 오늘날 침체되고 있는 농어촌의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촌은 FTA 등 시장개방 압력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고령화, 소득정체, 일자리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또한, 농촌의 귀농·귀촌과 달리 귀어·귀촌은 수산업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젊고 유능한 인력이 어촌 사회로 진입하는데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촌 6차 산업화 추진은 어촌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6차 산업화의 법적근거 확보와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국회 제출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어촌체험마을 및 자율관리공동체 등을 중심으로 마을단위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4개소)도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어촌 6차 산업화의 근거법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던 어촌지역의 6차 산업화 성공사례와 현재 준비 중인 지역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촌 6차 산업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 ● 어촌 6차 산업화 입법 추진

농림어업 분야에 대한 6차 산업화 논의는 사실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일본은 어촌 6차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문 지원센터 설립과 필요한 자금융자, 보조 등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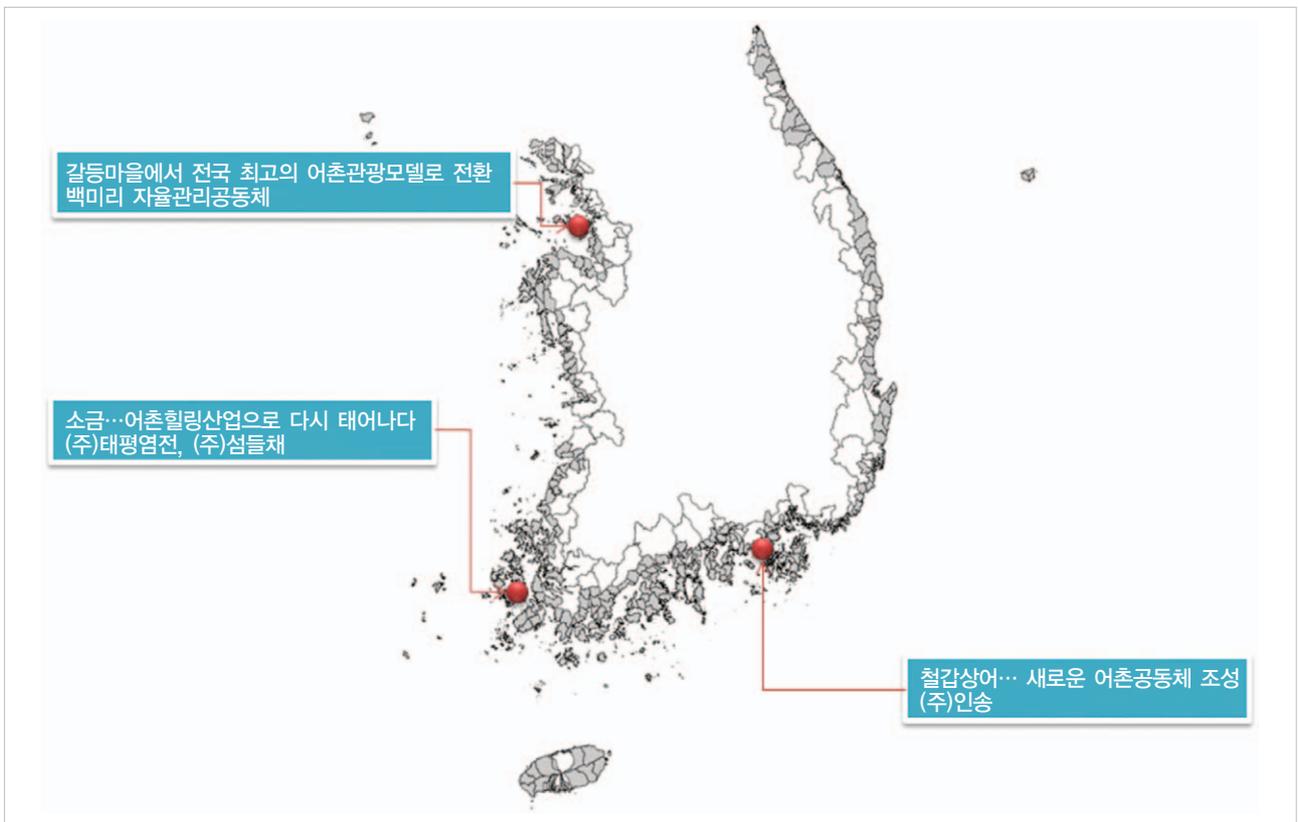
또한, 국내 농촌분야에서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4년 5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어촌분야도 6차 산업화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고, 8월에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동 개정(안)에는 어촌 6차 산업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6차 산업화 지원센터 전담기구 마련뿐만 아니라 창업 자금 지원, 연구개발 지원,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보다 체계적인 어촌 6차 산업화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6차 산업화를 통한 성공사례

6차 산업화 정책이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어촌 6차 산업화를 통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일부는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사례에서는 화성시 백미리 자율관리공동체, 신안군 중도의 (주)태평염전과 (주)섬들채, 경남 고성군의 (주)인송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1. 어촌 6차 산업화 사례지역〉

### ① 백미리, 갈등마을에서 전국 최고의 어촌관광모델로 전환

경기도 화성시 백미리는 선도적인 어촌체험마을로 잘 알려져 있다. 2007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되기 전까지는 어촌계 내부 갈등과 낮은 어업소득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곳이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선진 어촌공동체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어촌 6차 산업화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백미리 어촌은 수도권의 입지적인 장점도 있었지만 젊고 유능한 새로운 인력을 과감하게 어촌계로 받아

들이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기 시작하였다. 어촌계장은 어촌계로 유입된 젊고 유능한 귀어·귀촌인력을 어촌체험 프로그램과 사무장으로 활용하고, 2차산업(제조·가공)으로 김 브랜드 상품화뿐만 아니라 수산물 직판매장, 식당, 펜션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소득이 높아지고, 이는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단순히 어업자원을 채취하던 시기에는 바지락 등 패류자원의 평균 가격이 kg당 2,500원에서 6차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은 kg당 10,000원 내외로 4배가량 높게 판매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오토캠핑장 등 외부의 민간개발이 백미리 어촌공동체와 연계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사업 연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 2. 백미리 자율관리공동체 6차 산업화 사례〉

## ② 태평염전, 소금에서 어촌 힐링·치유산업으로 재탄생

소금생산은 기술의 혁신과는 별개로 전통적인 방식에서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 하지만 전통산업의 대표 주자였던 소금산업이 6차 산업화의 바람을 타고 힐링·치유산업으로 미래 산업화를 모색하고 있다.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는 슬로우 섬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차별화된 지역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중심에 태평염전이 있다.

태평염전은 150만 평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염전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천일염 생산과 가공제품을 통해 발전해왔다. 하지만 태평염전은 1차 산업(천일염 생산)과 2차 산업(소금 가공제품 생산)만으로는 급변하는 시장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단순 체험관광이 아닌 3차 산업으로서 힐링과 치유를 목적으로 Salt Cave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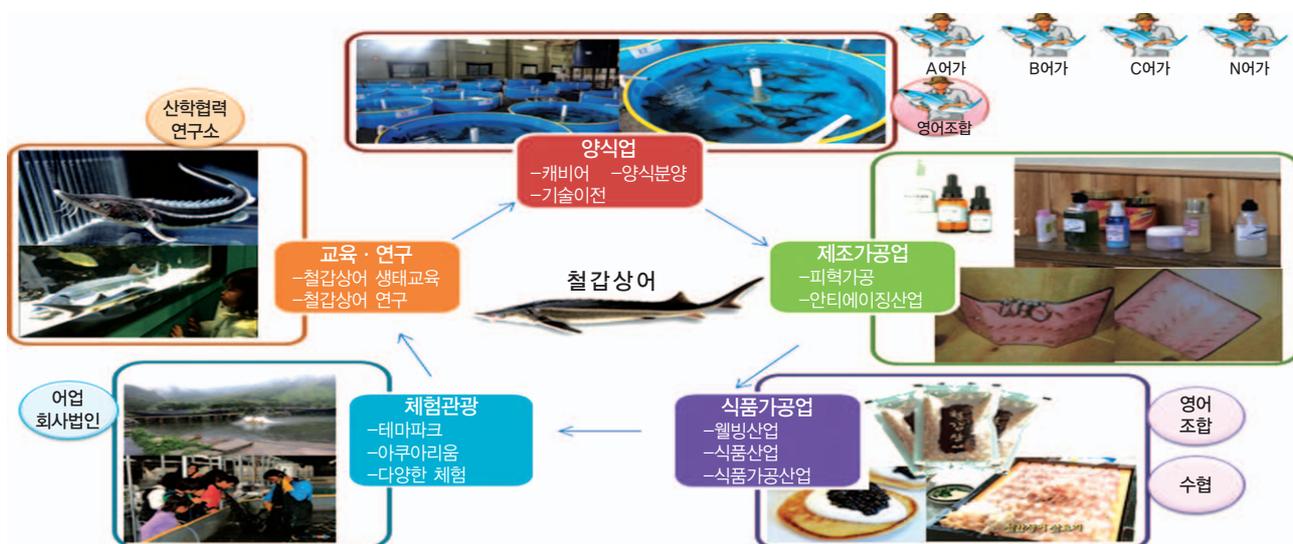
〈그림 3. 태평염전(소금) 6차 산업화 사례〉

태평염전은 6차 산업화를 통해 연간 431명, 152억 원 가량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2차 산업의 영역인 (주)태평소금에서 257명 고용, 77억 원의 매출이 나타났다. 하지만 어촌 힐링·치유산업을 테스트베드(Test-bed) 차원에서 운영 중인 상황에서 18억 매출과 59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진 점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IT기술과 어촌 힐링·치유산업을 연계함으로써 보다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면 보다 다양한 수익모델과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 ③ 철갑상어, 새로운 어촌공동체를 꿈꾸다

철갑상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값비싼 캐비어와 원시어종으로서 수족관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철갑상어는 내수면 양식품목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나아가 내수면 어촌공동체와 지역 전략산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림 4. 철갑상어 6차 산업화 사례〉

외국에서는 철갑상어 양식을 통해 캐비어 생산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하지만 철갑상어는 식품으로써 캐비어와 횡감 생산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피혁제품, 테마파크로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양식 기술 이전이 용이하기 때문에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수요 창출이 이루어진다면 생산어가를 적극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내수면 어촌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다. 저자가 다녀왔던 (주)인송의 경우에도 피혁제품, 미용제품 등 시제품 생산단계에 머물러 있어 아직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가 남아 있었다.

시제품 생산 이후 시장분석, 판로개척 등을 통해 수요가 창출되는 시점에는 6차 산업화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재평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어촌 6차 산업화, 앞으로의 과제

어촌 6차 산업화는 근거법 마련을 위한 개정(안) 추진과 함께 모델 발굴 및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단계에 있다. 법률 개정과 연구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전략과 과제가 마련되겠지만 정책 담당자로서 고민하고 있는 과제 몇 가지를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어촌 6차 산업화에 대한 개념은 사람들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 정립뿐만 아니라 유사한 국내외 성공사례 발굴과 공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세미나, 박람회 등의 기회가 자주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어촌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자원의 특성, 사업주체의 유형(마을, 회사법인, 기업체 등) 등에 따라 비즈니스의 수준과 여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과 성공사례집 등이 필요하다.

셋째, 6차 산업화는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과 전략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어촌공동체가 사업주체로서 6차 산업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기업체에 준하는 절박함과 생존에 대한 강한 의지가 필요한데 반해 현실적인 여건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영컨설팅과 역량강화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 ● 맺으면서

우리 어촌은 한·중 FTA와 어촌경제 침체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규모 영세한 어업인들은 여전히 수산자원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어촌 6차 산업화와 같은 정책은 어촌공동체의 역량을 향상시켜 기업 경영의 마인드로 접근해야 할 영역이라 생각한다.

어촌 6차 산업화는 어촌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전략이다. 따라서 우리 어촌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6차 산업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절박한 어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 믿는다.

6차 산업화를 통해 어촌의 새로운 가치와 상품·서비스를 창출해냄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력이 넘쳐나고 도시 근로소득자보다 소득이 더 높은 어촌공동체를 상상하는 것이 먼 미래가 아닌 향후 5년 내 우리 어촌의 모습이기를 꿈꿔본다.

“6차 산업화, 어촌의 희망입니다.” 